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30일(금) 총 7매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 음악도시팀장 김은효 ☎440-4017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장선미 ☎440-4018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120년 한국 이민 역사를 돌아보다

- 인천시, 3개월간 인천과 하와이서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
- 최초의 공식 이민 출발지 인천의 문화적 다양성·역동성·포용성 재조명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을 전후해 120년 한국 이민 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인천과 하와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식행사, 핵심사업, 기획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이민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다양성, 역동성, 포용성을 품은 인천의 정체성을 재조명한다는 방침이다.

1902년 12월 22일 월요일 121명이 인천 제물포에서 일본우선주식회사의 켄카이마루에 승선했다. 나가사키에서 증기선 갤럭시호로 갈아타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첫 해외 이민자들이다.

최초의 공식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은 여전히 세계 곳곳의 732만 여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오가고 있으며, 전 세계 관광객이 인

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한국을 드나드는 명실공이 한국의 관문도시다.

이민 1세대 구성원의 출신지는 제물포(68명), 강화(5명), 부평(10명), 교동 (4명), 서울(7명), 기타(10명)로 인천인이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단순히 이민선 출발지라는 것을 넘어 한인 이민의 역사에 인천이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

시는 TV방송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통해 ‘포용의 도시 인천’에 대한 내·외국인·재외동포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민의 역사와 다층적 이민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코리안페스티벌 개최 및 하와이 특별전시를 통해 교민과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한편 인천시는 ‘이민 역사의 도시’의 상징성과 지리적 이점 및 접근성을 근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120년 기행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꿈 -문화예술로 보는 디아스포라 120년 영상 제작 ... YTN 방영

‘가고싶은 도시’, ‘살고싶은 도시’ 인천에 대한 내·외국인·재외동포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4부작 다큐멘터리가 9월 마지막 주말과 10월 첫 주말 YTN을 통해 방영된다.

한국의 최초 공식 이민이 제물포항에서 떠난 배경과 한민족 이주사를

그린 1부 ‘사탕수수 농장에 뿌리 내리다’와 하와이 이민 3세~5세를 중심으로 미주 이민 120년의 삶을 재조명하는 2부 ‘달콤한 결실을 맺다’가 9월 24일과 25일 방영됐으며 멕시코 쿠바 이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제3부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름, 애니깽’과 세계의 차세대 이민자 및 하늘길로 돌아오는 인천을 다룬 4부 ‘뱃길 120년 후, 하늘길로 돌아오다’가 10월 3일과 4일 방영된다.

기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YTN 홈페이지 다시보기- YTN 스페셜을 통해 재 시청이 가능하다.

한지로 접은 비행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현대미술 전시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동포 작가들의 예술작품 특별전이 9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과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해외 동호 예술가 중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작업하는 12개국 23명 작가의 회화, 영상, 사진, 조각, 미디어 설치 등 4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삶과 예술적 여정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전시가 진행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일부 동(D동)이 일본우선주식회사 건물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맥락을 고려할 때 행사 개최지로 갖는 의미가 크다.

일본우선주식회사는 120년 전 호놀룰루로 향하는 첫 이민자를 나가사키 항까지 태운 현해환호를 운영한 회사다.

시는 특별전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도슨트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날의 물결, 재물포로 돌아오다 사진으로 보는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

전 세계로 뿔어나간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조명하는 사진·영상 특별전이 10월6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한인 이민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 망라하는 700여점의 작품이 5부로 구성돼 야외전시장과 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된다.

1부에서는 세계 속 한인사회의 모습과 모국에 기여한 재외동포들의 활동상을 보여주고, 2부에서부터 5부까지는 한인 이민의 역사를 다룬다.

전시회와 함께 ‘하와이 이민자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비롯해 문화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토크콘서트와 갤러리 토크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마련된다.

120년의 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 코리안페스티벌

한미 수교 140년과 한인 이민 120년을 기념하는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 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대회에는 전 세계 한인회장과 한인연합회 회장 및 관계자 등 77개국

36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인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4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서 ‘백이십년의 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이민 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에서 열리는 축하공연은 10월 9일 KBS2TV를 통해서도 방영된다.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와 특별전시

현지 교민들에게 수교 도시 인천과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예술행사가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하와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현지 교민과 외국인이 ‘인천드림’을 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인천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 포용성을 재조명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민 도착지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한인 이민의 역사를 조명하는 사진전을 개최하여 이민 역사의 중심 인천을 대내외적으로 재조명할 예정이다.

- <붙임> 1. 사진으로 보는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 전시 포스터
2. 코리안 디아스포라 현대미술 전시 포스터

붙임

사진으로 보는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 전시 포스터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코리안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Artistic Director LEE Taeho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갈라 포라스-킴 Gala Porras-Kim (LA, USA)
글렌 모리, 줄리 모리 Glenn Morey, Julie Morey (Denver, Colorado, USA)
김수자 Kimsooja (Seoul, Korea)
김희주 KIM Heejoo (Connecticut, USA)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ant (Paris, France)
민영순 MIN Yong Soon (LA, USA)
박유아 PARK Yooah (Seoul, Korea / New York, USA)
박이소 BAHG Yiso (Seoul, Korea / New York, USA)
백남준 Nam June Paik (Seoul, Korea / New York, USA)
윤진미 YOON Jin-mi (Vancouver, Canada)
이가경 LEE Kakyong (Seoul, Korea / Brooklyn, USA)
이영주 LEE Young Joo (Cambridge - LA, USA)
이현희 LEE Hyun-Hee (Sydney, Australia)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Copenhagen, Denmark)
최성호 CHOI Sung Ho (New York, USA)
케이트 허스 리 kate hers Rhee (Berlin, Germany)
하전남 HA Jhonnamm (Seoul, Korea / Nagano, Japan)

2022.
09.30. FRI
—
11.27. SUN

오프닝 리셉션

하전남 작가, <일본에서 태어난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2022.09.30.(금), 16:00, 전시장 1

북 콘서트

하와이 이민 3세 영문학자 Gary Pak의 소설
<A Ricepaper Airplane>
2022.10.08.(토), 15:00, 공연장

작가와 대화

최성호 작가 외
2022.10.22.(토), 15:00, 전시장 1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중앙광장 IAP Gallery 1, IAP Square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11:00 - 18:00 Closed on Mondays / Open 11:00 - 18:00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문화재단
Incheon Cultural Foundation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Platform

www.inartplatform.kr